



기업분석 | 제약/바이오

Analyst

강하나

02 3779 8808

kangx687@ebestsec.co.kr

NR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2,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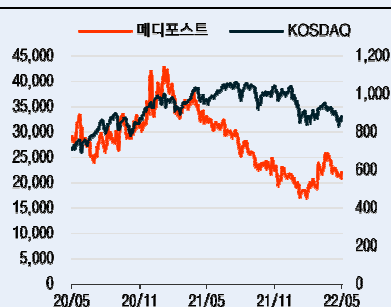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Stock Data

KOSDAQ(5/20)	879.88 pt
시가총액	3,578 억원
발행주식수	16,264 천주
52주 최고가 / 최저가	33,050 / 17,000 원
90일 일평균거래대금	41.01 억원
외국인 지분율	8.8%
배당수익률(21.12)	0.0%
BPS(21.12)	19,688원
KOSDAQ대비상대수익률	1개월 -4.6%
	6개월 13.8%
	12개월 17.7%
주주구성	양윤선 (외 6인) 6.7%
	자사주 (외 1인) 0.7%
	이장영 (외 1인) 0.1%

Stock Price



메디포스트 (078160)

날개를 달다

스카이레이크와 크라센도의 투자로 날개를 달다

메디포스트가 스카이레이크와 크라센도의 투자를 받은 주요 요인으로 1)CGT(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진출을 위한 자금, 2)카티스텍의 미국 임상3상 연구개발비, 그리고 3)듀모스텍 미국 2a상 연구개발비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모펀드는 총 1,400억 원 (전환사채 700억원 + 의결권부 전환우선주 700억원) + 200억원(양대표 구주매입)을 투자하는데, 1차와 2차를 나누어 자금조달이 진행된다. 2차로 나누어서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로는 1)전환사채가 기업가치의 미니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기반으로 CDMO없이도 1차종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2)2차부터는 CDMO계약을 체결 한 경우 동사의 파이프라인과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게 된다는 판단으로 전환우선주(CPS)로 투자하기 위함이다.

카티스텍(수술용) 순항에 시장확대를 위한 스머프(주사제): 연구부터 생산까지

출시 후 연평균성장률 40%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술용'이라는 인식에 의해 디스카운트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골관절염 초기가 아닌 grade2 이상 골관절염이 진행된 환자에게는 주사제가 소용이 없으며, 주사제 이후 골관절염 치료는 인공관절 이식 외에 치료옵션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카티스텍만이 주사제 이후의 치료옵션으로 총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카티스텍은 이러한 미충족요를 기반으로 일본 임상3상과 말레이시아 품목허가를 진행 중이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임상 3상 진입(2023년)을 앞두고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한국 장기추적 데이터를 통해 미국2상 생략 가능성을 확인 한 것이며, 내년 대규모임상(3상)과 이후 상용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복미 생산기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생산기지, CDMO 확보는 카티스텍과 SMUP-IA-01의 중장기적인 원가를 개선뿐만 아니라 CMO 외주로 인한 임상 지연을 막을 수 있으며, 신규 모달리티로서 생산 방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라이선스 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나 'SMUP-IA-01'는 기존 카티스텍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초기 환자 대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며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냉동제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상업성과 시장성이 확보가 되어 CDMO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기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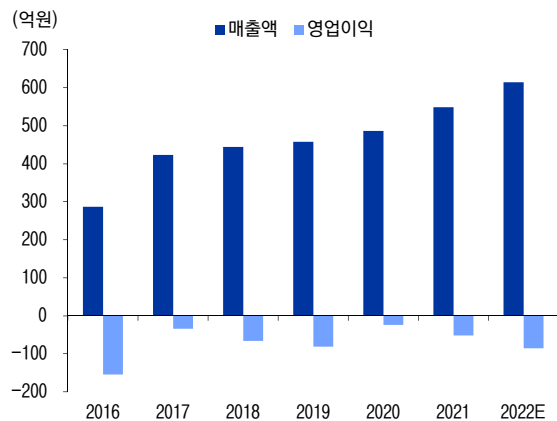
Financial Data

(십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42	44	46	49	55
영업이익	-3	-7	-8	-2	-5
세전계속사업손익	-2	-4	-8	0	1
순이익	-1	-2	-14	-2	-1
EPS (원)	-61	-129	-911	-122	-42
증감률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x)	n/a	n/a	n/a	n/a	n/a
PBR (x)	4.4	2.3	3.1	2.9	2.2
EV/EBITDA (x)	530.5	-302.1	-124.8	131.5	-1,116.8
영업이익률 (%)	-8.1	-14.9	-17.6	-5.0	-9.5
EBITDA 마진 (%)	4.1	-4.4	-7.0	5.5	-0.6
ROE (%)	-0.9	-1.7	-11.8	-1.7	-0.5
부채비율 (%)	38.5	38.6	90.9	88.0	56.7

주: 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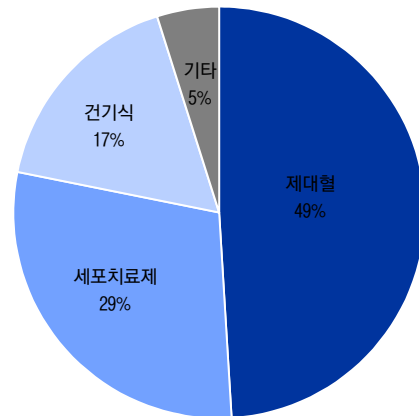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메디포스트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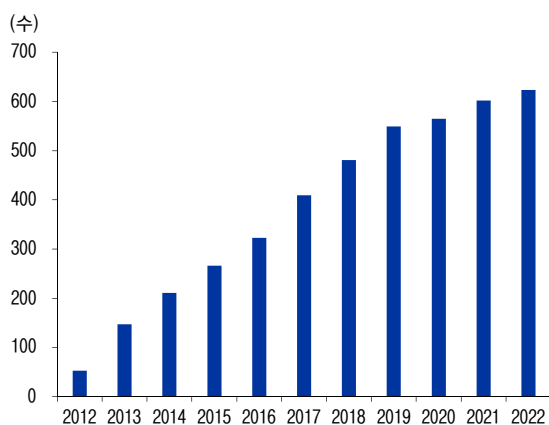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메디포스트 매출 구성 (2022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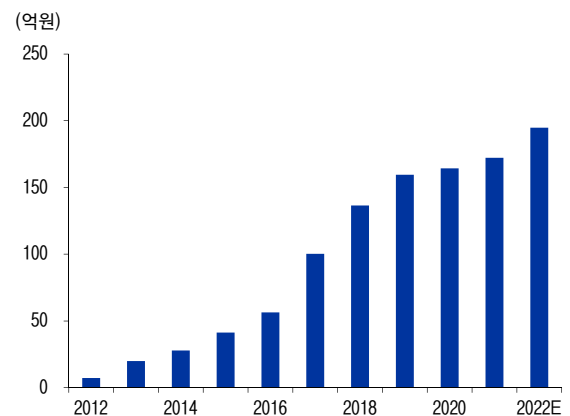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카티스템 처방 병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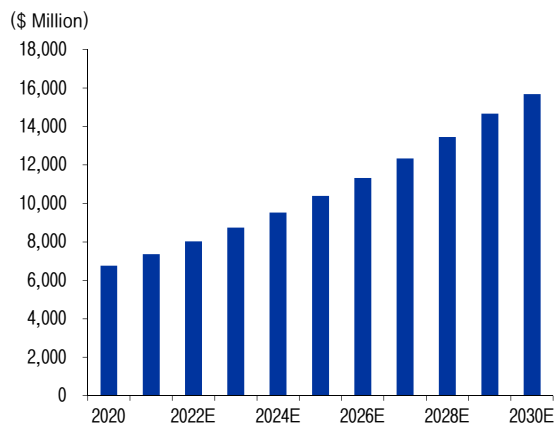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카티스템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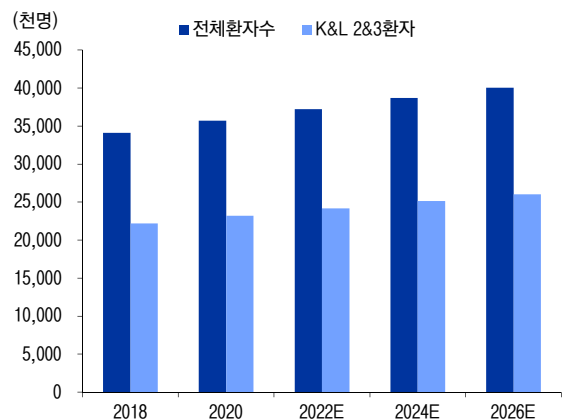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글로벌 관절염 시장 추이 및 전망



자료: Allied market research,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 골관절염 환자 추이 및 전망



자료: Global data,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날개를 단 메디포스트 (Feat. 스카이레이크 & 크레센도)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05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국내 1위의 제대혈은행 사업자이면서 1세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기업이다. 주요 사업부문으로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판매가 있고, 최근에는 북미지역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를 진행 중에 있다. 당사는 2012년도에 카티스탬(퇴행성 연골결손치료제, 수술용)을 상용화 시키며 줄기세포치료제의 선두주자로서 자리잡았으며, 수술이 필요 없는 골관절염 초기 환자를 위한 수술용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스머프'의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동사의 주력인 카티스탬은 출시 후 연평균성장률 40%를 보이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는 고성장 품목이 있음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2세대 줄기세포치료제(스머프, 뉴모스탬)를 개발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품목 다각화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개발 역량을 성장동력으로, 기존에 지속적으로 영위해왔던 제대혈은행(셀트리) 활용까지 극대화 시키고 있다. 국내 M/S 1위의 제대혈은행인 셀트리는 2021년 12월 기준 281,040 유닛의 제대혈 보관건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동사는 셀트리를 이용한 제대혈 유래 면역세포치료제 개발과 제대혈 이식에 힘쓰고 있다. 초창기의 사업을 안전하게 성장시키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던 도중 스카이레이크와 크레센도의 힘을 업어 글로벌 진출(미국, 유럽, 일본임상 + 북미 CDMO)이 코 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스카이레이크와 크레센도 투자 유치 현황

메디포스트가 스카이레이크와 크레센도의 투자를 받은 주요 요인으로 1)CGT(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진출을 위한 자금, 2)카티스탬의 미국 임상3상 연구개발비, 그리고 3)뉴모스탬 미국 2a상 연구개발비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모펀드 운용사는 총 1,400억원 (전환사채 700억원 + 의결권부 전환우선주 700억원) + 200억원(양대표 구주매입)을 투자하는데, 1차와 2차를 나누어 자금조달이 진행된다. 2차로 나누어서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로는 1)전환사채가 기업가치의 미니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기반으로 CDMO없이도 1차 종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2)2차부터는 CDMO 계약을 체결 한 경우 동사의 파이프라인과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게 된다는 판단으로 전환우선주(CPS)로 투자하기 위함이다.

그림7 메디포스트 제 3차 배정 자금조달 개요 및 일정

1st 투자	[2nd 투자 선행조건]	2nd 투자
· 조달방법: 전환사채(CB) · 조달규모: 700억원 - 스카이레이크 350억원 - 크레센도 에퀴티 350억원 · 발행가: 주당 19,700원 · 주금납입예정일 - 스카이레이크 22.03.25 - 크레센도 에퀴티 22.04.08	메디포스트 CDMO기업 투자 계약 · 투자목적: 줄기세포선별 및 배양기술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글로벌 *CGT CDMO시장 진출을 통한 시너지 기대 · 대상기업: 북미소재 CGT CDMO 기업 · 투자규모: 총 850억원 · 계약체결예정일: 2022년 5월 * CGT: Cell Gene Therapy (세포유전자치료제)	· 조달방법: 의결권부 전환우선주(CPS) · 조달규모: 700억원 - 스카이레이크 350억원 - 크레센도 에퀴티 350억원 · 발행가: 주당 18,715원 · 주금납입예정일 - 선행조건 완료 후, 영업일기준 20일 이내 ※ 주금 납입 후, 최대주주 변경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차 투자 완료 시에 비로소 최대주주가 스카이라이크와 크레센도가 되며, 총 20.7%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2023년 3월 이후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시에는 32.7%까지 지분율 확대가 가능(전환사채 100% 전환가정, 리픽싱 반영x)하다. 두 사모펀드는 메디포스트의 CDMO 사업 진출을 발판 삼아 기존 상용화 및 생산 경험으로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CGT CDMO의 필요성과 중장기 성장동력: 후기임상부터 상용화 SPEED UP

미국 1/2상 같은 경우 타사 CMO를 이용하면 되지만 3상부터는 대규모 임상이고 아직은 전세계적으로 세포치료제 CDMO 공장들의 Capacity가 확실히 없다. 특히나 미국 임상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을 타겟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장이 매우 크며 생산 볼륨에 대한 수요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진전이나 임상 완료 이후 상용화 시에 생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CDMO가 성장동력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나 미국 임상의 경우 1/2a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1)한국 임상 및 시판데이터를 근거로 임상 3상이 가능하다는 점, 2)FDA와 긍정적인 컨펌이 진행 중이라는 점, 3)미국 임상3상 진행여부에 따라 유럽 임상 진행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해볼 만하다. 글로벌 상용화를 생각해보았을 때 북미지역의 생산 거점이 필요한 것인데, 생산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라이선싱 계약에서도 생산기지 확보에 따라 외부 제약사들과 라이선싱 계약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업사이드가 있다. 줄기세포치료제와 골관절염 치료제가 신규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커머셜 플레이어들이 자체 생산 Capacity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고 CMO는 1-2상 정도의 초기 임상을 위탁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원가에 대한 고충이 이로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고, 2023년에 시작될 예정인 미국 임상3상부터도 원가 생산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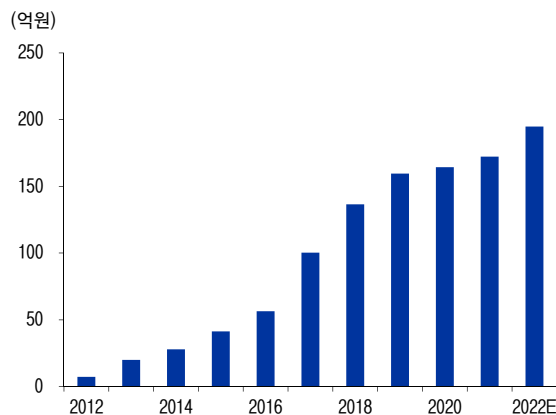
카티스팀의 글로벌화: 미국과 일본, 말레이시아까지

2012년 한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카티스팀은 매년 꾸준히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발목 골관절염 임상3상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적응증을 확대시킬 예정이다. 동사는 2012년부터 10년간 쌓인 트랙레코드와 레퍼런스, 그리고 연골 재생을 확인하는 프로토콜을 통해 안정성과 연골 재생 여부(전세계 유일)가 확실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령화와 비만율이 가속화되는 시장에서 미충족수요를 해결해줄 수 있는 치료제라는 판단이다.

현재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일본' 시장에서 동사는 투트랙 진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1) 카티스팀과 오자형 흰다리 교정술(HTO) 병용 시술 임상2상과 2)카티스팀 단독투여 임상3상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며, 무릎 골관절염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의료치료제는 일본 내에서 상업임상 최초일 정도로 이례적인 임상이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단독 임상3상이 리오프닝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며, 한국보다 무릎골관절염 환자가 약 10배 이상 많은 일본에서의 임상은 차후 동사에게 큰 불임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일본 이외에도 아세안국가 연쇄 진출 전략을 기반으로 현재 말레이시아에 품목허가(BLA)를 신청했으며, 이는 국내임상 결과를 근거로 현지 임상을 생략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바이오의약품 규정을 정립했을 정도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높은 나라이며, 아세안 국가 중에서 무릎골관절염 환자 수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무릎골관절염 시장을 떠나서, 아세안 국가 품목허가 진행될 시에 차후 주변 아세안 국가(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품목허가 신청도 수월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품목허가가 중요할 것이다.

그림8 카티스팀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카티스팀 지역별 임상 진행현황

미국	일본 [카티스팀]
· 카티스팀: P1/2a 종료	· P2 진행중
P3 추진 예정 (P2생략)	(K&L2~4+HTO병용)
· SMUP-IA-01: Pre-IND 미팅 완료	· P3 진행중 (K&L2~3)
P2 추진 예정 (P1생략)	
· 뉴모스팀: P1/2 종료	
말레이시아	한국
· 카티스팀: BLA신청	· 카티스팀: P3 진행중 (발목적응증)
	· SMUP-IA-01: P2 진행중
	· 뉴모스팀: P2 진행중
	· 뉴로스팀: P1/2a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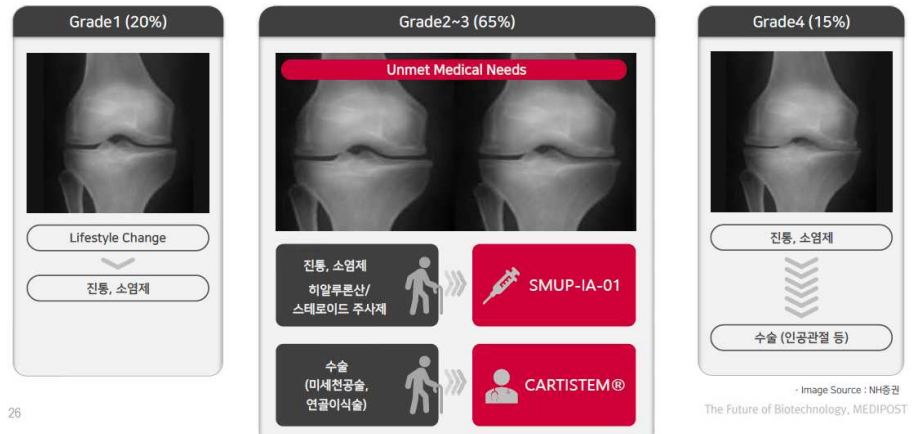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초기환자는 '스머프'

동사는 과거부터 '카티스팀'이 '수술용'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점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카티스팀은 1)초기 환자가 아니라 골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grade3(초-중기) 정도의 환자에게 필수적인 수술요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환자들은 주사제(스테로이드 주사, HA 주사 등)로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이나 수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인공관절 수술(10 년마다 갈아야 한다는 단점)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카티스팀은 주사제로는 치료나 완화가 안되고, 인공관절(10 년마다 갈아야 함)까지는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미충족수요를 해결해줄 새로운 치료옵션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던 디스카운트이다. 이제는 2)시장 확장을 위한 주사제 '스머프'의 임상 진전으로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 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과 3)미국 pre-IND 미팅 결과, 한국 임상결과를 인정 받아 1 상 생략 및 2 상 추진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초기+중기환자를 모두 커버하는 파이프라인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동사의 업사이드를 충분히 확인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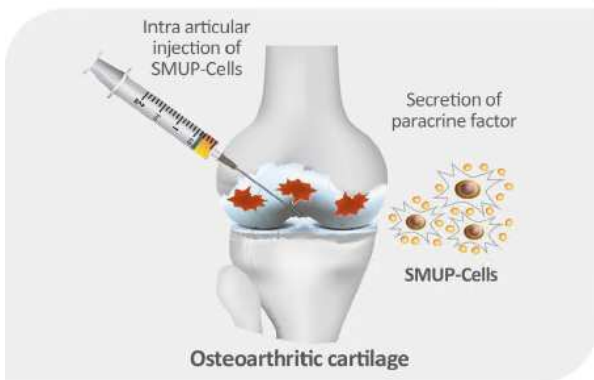
그림10 골관절염 증상 수준(K&L Grade)별 치료법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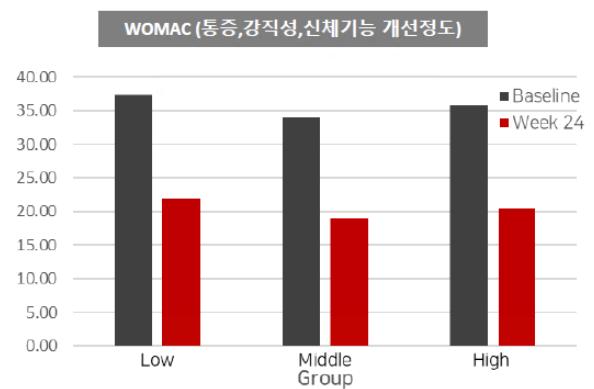
주사제 '스머프'는 기존 카티스템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초기 환자(+90%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2 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3 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으며 총 90 명(저용량 30 명, 중용량 30 명, 활성대조군 3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절강 내 1 회 투약 후, 1 년 관찰 예정이며 3 상에서 최적의 용량으로 대규모 임상이 진행될 것이다. 임상 1 상에서 환자 12 명을 대상(평균 연령 69 세)으로 진행된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 및 약물이상반응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 모두에서 임상증상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스머프는 타 주사제 대비 고효능세포를 이용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냉동제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상업성과 시장성이 확보가 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림11 주사형 치료제 스머프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스머프 국내 임상 1 상 결과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뉴모스텝은 더 빨리 찾아올지도?

뉴모스텝은 너무 일찍 태어난 미숙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제이다. 폐를 제대로 적셔줄 세포가 없어, 폐가 말라버리면서 폐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병이다. 폐 섬유화가 아기 때부터 진행되면 1살, 2살, 3살이 되면서도 폐활량이 정상이 아니게

되다 보니 지능 발달도 더디게 되며 중장기적인 치료비용이 극도로 높아지게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또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뉴모스스템을 기도 내에 투약하는 방식이다. 뉴모스스템은 핏줄을 생성시켜주는 성장인자를 뽑아내는 세포를 주입시키므로 서 1)미숙아 중환자실 입원율 감소로 입원비 최소 30% 감소, 2)초기에 폐세포를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섬유화를 막을 수 있고, 3)항세포를 사멸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경쟁약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ODD(희귀의약품지정, 2013년)을 인정받고 2019년에는 Fast Track을 지정 받으며 꾸준히 follow up(미국 2년, 한국 5년)과 관심을 받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와 크레센도로부터 수혈 받은 자금을 통해 올해 말 미국에서 임상2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13 메디포스트 파이프라인 현황

적응증	치료제	임상국가	Phase I	Phase II	Phase III	In detail
 무릎 골관절염	CARTISTEM®	한국	12년 시장진출, 블록버스터 의약품			
						발목 골관절염 임상 3상 진행중 (현대바이오랜드)
		미국	임상 1/2a상 종료 한국 임상 및 시판데이터를 근거로 임상 3상 가능			
		일본 (2상)				진행중 (K&L 2~4 + 휠다리 교정술 병행) 한국 임상 및 시판데이터를 근거로 임상 1상 생략
		일본 (3상)				진행중 (K&L 2~3) 한국 임상 및 시판데이터를 근거로 임상 1상, 2상 생략
		말레이시아	정식품목허가 (BLA)신청 한국 임상 및 시판데이터를 근거로 현지 임상 생략			
	SMUP-1A-01	한국	임상 2상 진행중			
		미국	Pre-IND 미팅 완료 한국 임상 결과를 근거로 1상 생략 및 임상 2상 가능			
 기관지폐이형성증 (BPD)	PNEUMOSTEM®	한국	임상 2상 진행중			
		미국	임상 1/2상 종료 미국 및 유럽 희귀의약품 지정 미국 Fast Track 지정			
 급성호흡중후군 (ARDS)	SMUP-1V-01	한국	전임상 진행중			

The Future of Biotechnology, MEDPOST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메디포스트 (078160)

재무상태표

(십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유동자산	42	57	91	81	81
현금 및 현금성자산	9	6	12	9	1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	7	10	12	11
재고자산	8	7	8	9	10
기타유동자산	18	36	62	50	49
비유동자산	103	119	122	139	173
관계기업투자등	14	10	14	16	14
유형자산	43	70	72	85	111
무형자산	8	7	6	4	7
자산총계	145	176	214	220	254
유동부채	5	21	69	63	4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	4	8	7	7
단기금융부채	0	16	56	52	29
기타유동부채	1	1	4	4	4
비유동부채	35	28	33	40	51
장기금융부채	22	6	2	2	2
기타비유동부채	13	21	31	38	49
부채총계	40	49	102	103	92
지배주주지분	104	127	112	117	159
자본금	4	4	8	8	8
자본잉여금	132	133	129	129	158
이익잉여금	-30	-32	-47	-47	-48
비지배주주지분(연결)	0	0	0	0	3
자본총계	104	127	112	117	162

현금흐름표

(십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영업활동 현금흐름	-7	7	8	2	4
당기순이익(손실)	-1	-2	-14	-2	-1
비현금수익비용가감	-3	2	16	10	8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	3	3	3	3
무형자산상각비	2	2	2	2	2
기타현금수익비용	-8	-3	11	5	-2
영업활동 자산부채변동	-3	7	6	-6	-3
매출채권 감소(증가)	-4	2	1	0	2
재고자산 감소(증가)	-1	-1	-1	-5	-7
매입채무 증가(감소)	2	0	0	-2	1
기타자산, 부채변동	1	6	6	1	1
투자활동 현금	3	-12	-36	-3	-8
유형자산처분(취득)	-1	-1	-4	-8	-10
무형자산 감소(증가)	0	-1	-1	0	0
투자자산 감소(증가)	3	-12	-28	4	2
기타투자활동	2	2	-3	0	0
재무활동 현금	3	2	34	-1	6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34	0	-1
자본의 증가(감소)	0	1	0	0	6
배당금의 지급	0	0	0	0	0
기타재무활동	3	2	0	-1	0
현금의 증가	-1	-3	6	-3	2
기초현금	10	9	6	12	9
기말현금	9	6	12	9	11

자료: 메디포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손익계산서

(십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42	44	46	49	55
매출원가	17	16	17	18	23
매출총이익	25	28	29	31	32
판매비 및 관리비	29	35	37	33	37
영업이익	-3	-7	-8	-2	-5
(EBITDA)	2	-2	-3	3	0
금융손익	1	1	-2	-5	-2
이자비용	0	0	4	6	4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0	2
기타영업외손익	0	2	5	11	10
세전계속사업이익	-2	-4	-8	0	1
계속사업법인세비용	-1	-2	6	2	2
계속사업이익	-1	-2	-14	-2	-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	-2	-14	-2	-1
지배주주	-1	-2	-14	-2	-1
총포괄이익	-1	22	-14	3	13
매출총이익률 (%)	59.6	63.9	63.4	63.5	58.1
영업이익률 (%)	-8.1	-14.9	-17.6	-5.0	-9.5
EBITDA마진률 (%)	4.1	-4.4	-7.0	5.5	-0.6
당기순이익률 (%)	-2.3	-4.5	-30.8	-3.9	-1.8
ROA (%)	-0.7	-1.3	-7.3	-0.9	-0.3
ROE (%)	-0.9	-1.7	-11.8	-1.7	-0.5
ROIC (%)	-2.7	-4.4	-4.4	12.6	7.1

주요 투자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투자지표 (x)					
P/E	n/a	n/a	n/a	n/a	n/a
P/B	4.4	2.3	3.1	2.9	2.2
EV/EBITDA	530.5	-302.1	-124.8	131.5	-1,116.8
P/CF	n/a	n/a	151.8	44.1	52.3
배당수익률 (%)	n/a	n/a	n/a	n/a	n/a
성장성 (%)					
매출액	-7.8	5.1	3.2	6.1	12.8
영업이익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세전이익	적지	적지	적지	흑전	96.1
당기순이익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EPS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안정성 (%)					
부채비율	38.5	38.6	90.9	88.0	56.7
유동비율	810.0	267.8	133.1	127.9	195.9
순차입금/자기자본(x)	0.1	7.4	37.0	-3.5	-5.4
영업이익/금융비용(x)	-8.7	-18.2	-1.9	-0.4	-1.5
총차입금 (십억원)	22	22	58	54	31
순차입금 (십억원)	0	9	41	-4	-9
주당지표(원)					
EPS	-61	-129	-911	-122	-42
BPS	13,291	16,117	7,145	7,462	9,806
CFPS	n/a	n/a	145	498	421
DPS	n/a	n/a	n/a	n/a	n/a

메디포스트

목표주가 추이

(원)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20/05

20/11

21/05

21/11

주가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락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락율(%)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대비
2022.05.23	신규	강하나									
2022.05.23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강하나)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0.8% 9.2% 100.0%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20%에서 ±15%로 변경 투자의견 비율은 2021. 04. 1 ~ 2022.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 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